광주 군(軍)공항 범정부협의체 뜬다

정세균 총리, 광주전남 기자단과 간담회
"수 년째 표류…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
"시작이 반, 조정자 역할 성실히 할 것"

수 년째 교착 상태인 광주 군(軍)공항 이전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범정부 상설협의체가 출범한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광주시, 전남도 등을 총망라하는 논의기구로, 광주·전남 최대 공통현안인 공항 이슈에 대한 돌파구가 마련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3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광주·전남 언론사 서울주재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겸 지원자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둘러싼 첨예한 입장차로 군공항 이전후보지 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정부 주도론'에 총리실이 공개적으로 응답한 셈이다.

범정부협의체는 기본적으로 총리실과 국방부, 국토교통부, 광주시, 전남도 등이 참여하고, 필요할 경우 지방행정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와 정부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등 유관부처 고위공직자들도 참여토록 할 예정이다. 협의체 공식 출범은 4월 중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동쪽에서는 대구경북이 군공항을 이전키로 했고, 동남쪽에서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진척을 보이고 있는 반면 광주·전남의 경우 2014년 이후 수 년째 표류하고 있다"며 "공항문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협의체를 꾸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를 중심으로 논의하되 (인센티브 강화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이고, 돌파구도 함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가 군공항 통폐합까지 포함해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옵션은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현재 정부의 입장은 광주에 있는 공항을 이전하는 것이고, 그것을 무리없이 잘 실행하기 위해 논의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시작이 반"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들의 의지에 방점을 찍었다.

정 총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 지자체"라며 "정부 부처는 양 지자체가 합의를 이루고 시·도민들이 공감대를 만드는데 필요한 기여, 그것들을 어떻게 동원해서 일이 되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조정자 역할을 성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키는 또 광주시민, 전남도민에게 있다"며 "중앙 정부와 양 지자체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도, 시·도민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지역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월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주전남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문제 등 광주·전남 주요 현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광주시 제공)

31일 문을 연 광주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 (사진 제공 = 광주 광산구)

광주 수완건강생활센터 개소

'지역밀착 건강증진'

3월 광주 광산구 수완건강생활지원센터가 3월 31일 문을 열었다. 기존 수완보건지소가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전담기관으로 새롭게 단장한 것이다.

광산구는 2019년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능전환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국·시비 등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설비 3억6500만 원, 장비비 7600만 원을 투입해 기존 시설과 장비를 보강했다.

센터는 만성질환·모자건강·재활 보건사업과 함께 젊은 인구가 많은 광산구 특성을 반영, '아이 키우기 좋은 광산' 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건강체험관을 운영한다.

평생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시기의 생활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영양·운동·안전·금연 등 개인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콘텐츠를 놀이·애니메이션 형식의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제공한다.

임형택 기자

광주평생교육진흥원, 배움이 있는 공간
'자치구 마을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실시

5개 자치구, 52개 행복학습센터 대상 7천5백만 원 지원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 김이겸)은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가장 근거리에서 파악하고 지역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1년 자치구 마을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 최종 프로그램 선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행복학습센터란 주민센터, 복지회관, 도서관, 아파트 시설 등 주민들이 편안하고 부담 없이 찾아가는 배움이 있는 공간, 마을과 주민의 교류와 소통이 있는 핵심 거점 공간이다.

'마을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한 행복학습센터 프로그램'과 '생활 단위 마을형 평생학습모델 프로그램' 등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행복학습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자치구 마을 행복학습센터 지원사업은 심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거쳐 5개 자치구 대상 총 7천 5백만 원 예산에 대한 지원을 결정했다. 올해 선정된 프로그램은 4월부터 마을 곳곳의 행복학습센터에서 개강을 시작한다.

먼저 동구는 '건강 밸리', '아동요리 지도사 자격과정', '3D프린팅 전문가 과정' 등의 프로그램을 7곳의 행복학습센터에서 운영한다. 서구는 주민수요 및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게임으로 배우는 '한국어 초급', '화정마을 자연안내자 교육', '업사이클링' 등의 프로그램을 11곳의 행복학습센터에서 개설한다. 남구는 '뚝딱뚝딱 목공교실', '도전! 유튜브 크리에이터', '난지실 카페 바리스타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10곳의 행복학습센터에서 운영한다.

북구는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는 '인생배움터 무릎학교' 모델을 접목해 '도시남자의 시골집 이야기', '운암마을 그림책 과정', '장모님 손이 들려주는 집밥이야기 과정' 등을 13곳 행복학습센터에서 개설한다. 광산구는 '자수 아뜰리에 과정', '마을과 사람들 렌즈에 담다', '홈트레이닝 프로그램' 등의 프로그램을 11곳 행복학습센터에서 운영하게 된다.

최윤희 기자

동구, 로컬크리에이터 18人의 열정 한 권의 책으로

광주 동구가 관내 곳곳에서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소개하고 이들을 통해 지역경제가 되살아나는 과정을 그린 스토리 북 '그대 그렇게 빛나라, 동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Local)'이라는 콘텐츠에 기반해 창의력과 기획력을 가지고 혁신적인 사업방식으로 창업에 나서는 사람을 뜻한다. 이번에 발간된 스토리 북 '그대 그렇게 빛나라, 동명'은 광주지역 명소로 자리 잡은 동명동 카페거리 일원에서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상품 등을 판매하는 로컬 크리에이터 18명의 공간, 그들의 창업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서구,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 추진

광주 서구는 최근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종합적으로 대비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3월 30일 밝혔다.

서구는 지난해 환경부·광주시와 협의를 거쳐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복지시설 등 취약 계층 이용시설 밀집 지역인 금호2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 대상지로 선정했다. 우선 관내 어린이집 등지에 실내로 들어오는 미세먼지·유해물질을 차단하는 에어커튼(출입구 내·외부 공기 순환 차단 장치)을 설치했다.

우선 영·유아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유지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한다. 지난 3월 26일까지 금호2동 관내 어린이집 27곳에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에어커튼을 설치했다.

남구 구립도서관, '4월 프로그램' 주렁주렁

광주 남구 관내 구립도서관에서 4월 중순부터 제57회 도서관 주간 및 세계 책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3월 31일 남구에 따르면 주월동 푸른길도서관에서는 다가오는 4월 13일부터 2주간 1층 로비에서 전쟁의 참상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한간의 요술말' 그림책 원화 전시회가 열린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집콕 독후키트' 프로그램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도서관 추천도서를 읽고 난 뒤 도서관에서 제공한 키트를 제작해 네이버 밴드에 사진과 함께 참여 후기를 올리면 된다. 14일에는 6~9세 자녀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책을 읽고서 반려식물을 심는 등 가족끼리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행사도 마련되며, 18일에는 0~3세 아이를 둔 부모 및 아기 수면 문제로 고민인 부모를 대상으로 수면 교육을 선보이는 '알기 쉬운 아기 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북구, 산학연관 협력 주민 참여 과학프로그램 운영

광주 북구는 오는 10일 '떠나요! 과학소풍'을 시작으로 '2021년 주민 참여 과학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3월31일 밝혔다.

이번 과학프로그램은 산학연관 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년 동안 △떠나요! 과학소풍 △찾아가는 과학교실 △가족과 떠나는 별밤캠프 △가족과 함께하는 첨단과학골든벨 4가지 테마로 진행돼 왔다.

올해 '떠나요! 과학소풍'은 총 10회 운영되며 상반기에는 국립광주과학관을 방문해 과학수사대, 빛 탐구실 등 체험활동을 하고 하반기에는 R&D특구와 산학연관 협력기관을 견학할 예정이다.

평동 지사협, 출산가정 4세대에 축하선물 전달

광주 광산구 평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사협)는 3월 30일 신생아 출산가정 4세대에 축하선물로 지역상품권을 전달하고 기쁨을 함께 나눴다.

이 사업은 저출산과 농촌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제고와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동 지사협 위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되었다.

김윤곤 지사협 위원장은 "젊은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역민이 힘을 보태고 싶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